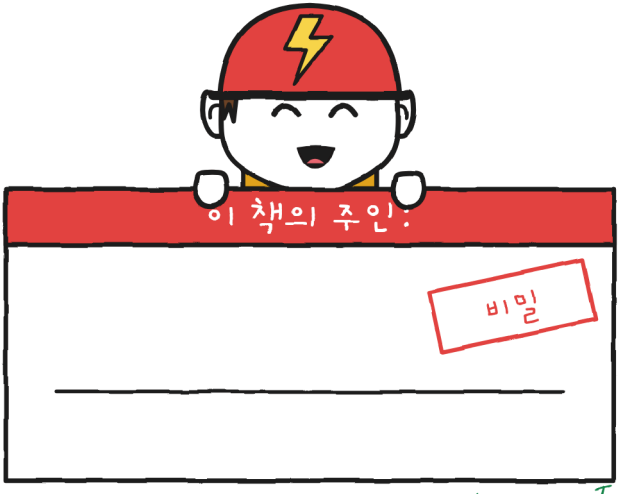


그리고 내가 먼저 읽는다. —J.

이걸 찾았다면 돌려줘. 부탁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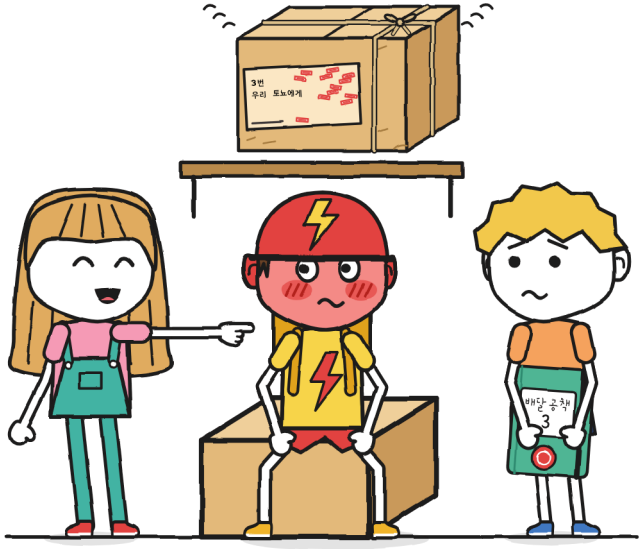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진짜 택배는 날아서 돌아오지 않아. 진짜 자전거를 탈 때는 마지막 쪽이 시키는 대로 해. —J.

불가능 배달 · 3

반송 부탁해요

LinguAula



(구니의 공책)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불가능 배달 · 3
반송 부탁해요

시리즈 세 번째 책. 앞선 책: ‘이 택배는 문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글과 그림: LinguAula

한국어판: LinguAula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초판: 2026

© 2026 LinguAula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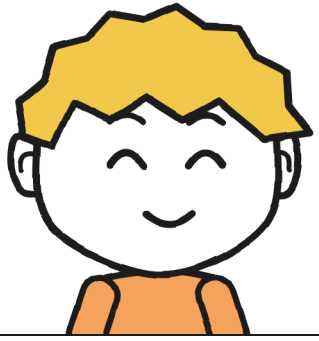
글꼴: Gowun Dodum, Gaegu, Nanum Pen Script, Nanum Gothic Coding, Andika, Patrick Hand, Caveat, Courier Prime (SIL OFL 라이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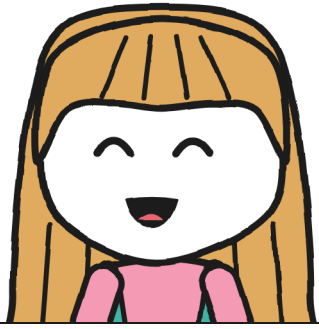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다친 배달원은 없다. 얼굴이 빨개진 사람은 있다. —J.

등장인물



구니. 토요일마다 배달하는 아이.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걸 그린다. 이 공책의 주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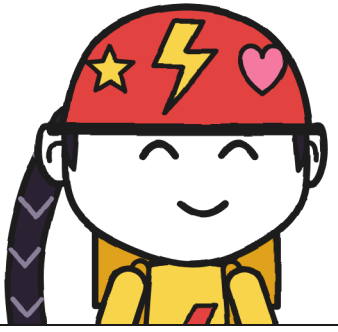
훌리타. 초록색으로 쓰고 J. 라고 서명한다. 도울 방법은 늘 안다. 그게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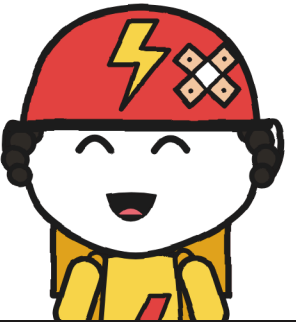
토뇨. 번개배송 배달원. 자전거로 배달한다.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한 군데씩 빨개진다.



마라. 불가능 배달의 주인. 마녀 모자를 쓴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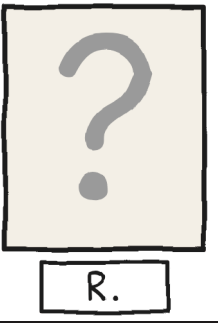
조이. 번개배송 배달원. 제일 빠르다. 별명을 붙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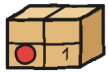
브루노. 번개배송 배달원. 펑크가 한 번 났다. 2년 전에.



3번 택배. 움직이면 소리가 난다. 라벨에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다.



R.은 아무도 배달하지 못하는 택배를 보낸다. 아무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제1장

딸랑

딸랑.

아주 작은 소리였다. 다른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에야 들리는 소리. 찻잔에 찻숟가락이 닿는 소리, 장난감 자전거의 벨 소리 같은 것. 돌아온 택배를 두는 선반에서 났다. 마라 아줌마 가게에 남아 있던 우리 넷은 도장에서 불꽃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꼼짝도 하지 않았다.

폭풍은 한참 전에 지나갔다. 훌리타는 아직 내 파란 걸상 위에 올라서서 초록색 매직펜을 치켜들고 있었다. 지워진 19 옆에 막 18을 써 넣은 참이었다. 마라 아줌마의 한 손은 셔터를 내리려다 중간에 멈춰 있었다. 나는, 제일 좋은 때에도 손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3번 택배였다. 그러자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인 번개배송 배달원 토뇨의 얼굴이 헬멧과 같은 색이 되었다.

공책은 새것이었다. 2권은 폭풍 한 번에 다 써 버렸다. 이번 것은 초록색이고, 한쪽 모서리에 가게 도장이 찍혀 있고, 첫 장은 내가 격식을 갖춰 쓰기로 했다. 첫 쪽에는 제목, 그리고 새로운 단어 하나.

배달 공책 3 • 주인: 구니. 비밀.

비밀이라는 건 내가 먼저 읽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해. —J.

나는 혀를 내밀고 제목을 썼다. 삐뚤어졌을까 봐 지우개를 가지러 갔다. 돌아와 보니 훌리타가 벌써 내 첫 장을 써 놓았다.

"네 공책 첫 장, 내가 대신 써 줬어. 도와주려고." 훌리타가 말했다. "천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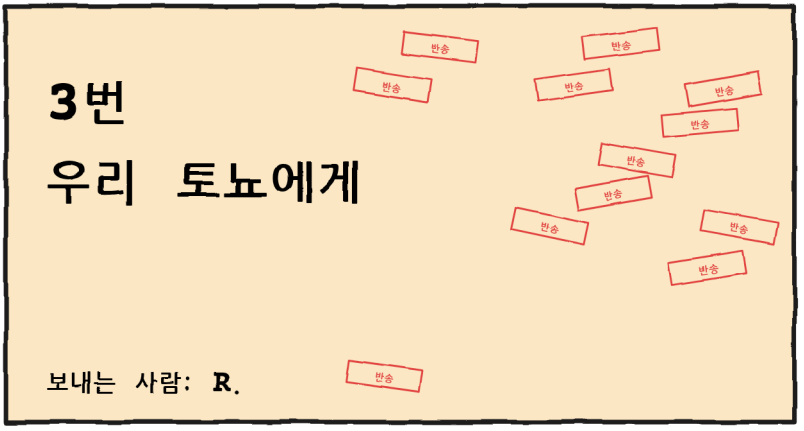
나는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없다. 훌리타한테는 상관없다.

나머지는 혹시 훌리타가 아닌 누군가가 이걸 읽는 날을 위해 적어 둔다. 가게 이름은 불가능 배달이고 주인은 마라 아줌마다. 마라 아줌마는 마녀이고, 보라색 모자를 쓰고, 찍으면 꺼진 양초 냄새가 나는 불꽃이 튀는 도장을 갖고 있다. 왼쪽 선반에는 돌아온 택배를 둔다. 아무도 배달하지 못한 택배들이다. 규칙은 단 하나뿐이다. 받은 사람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라벨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 뜰 때 택배는 날아서 자기 선반으로 돌아간다. 저녁밥 시간에 딱 맞춰 오는 고양이처럼 정확하게. 원래 스무 개였고, 늘 같은 사람 R.이 보낸다. R.에 대해서는 파란 공책에 단서를 여섯 개 적어 두었다. 훌리타와 나는 두 개를 배달했다. 용의 알 하나, 그리고 달리는 다리가 달린 씨앗 몇 알. 벽에는 훌리타의 초록색 글씨로 남은 택배 18이라고 적혀 있다.

훌리타는 초록색 메모를 쓰는 아이다. 나는 구니, 동네에 새로 온 아이고, 내 물건은 거의 다 아직 상자 안에 있다. 그리고 토뇨는 번개배송 배달원, 노란 가방을 멘 아이다. 토요일마다 우리와 함께 벌을 받고 있고, 폭풍이 지난 뒤로는 가게에 자기 자리도 생겼다. 걸상들 옆에 뒤집어 놓은 배달

상자다. 마라 아줌마가 아무 설명 없이 놓아 주었다. “일단은.” 아줌마는 그렇게만 말했다. ‘일단은’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다.

3번 택배는 맨 위 선반에, 알과 씨앗이 비워 놓은 두 빈자리 옆에, 라벨이 앞쪽을 향한 채 놓여 있었다. 읽어 보려고 다가갔다. 선 채로, 손은 대지 않고.



타자기로 친 석 줄. 3번. 우리 토뇨에게. 그리고 맨 아래에, 보내는 사람: R. 이름과 마지막 줄 사이에는 하얀 종이 칸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 둘레에는 ‘반송’ 도장이 열두 개. 세어 보았다.

훌리타가 걸상에서 폴짝 내려와 내 옆에 섰다. 소리 내어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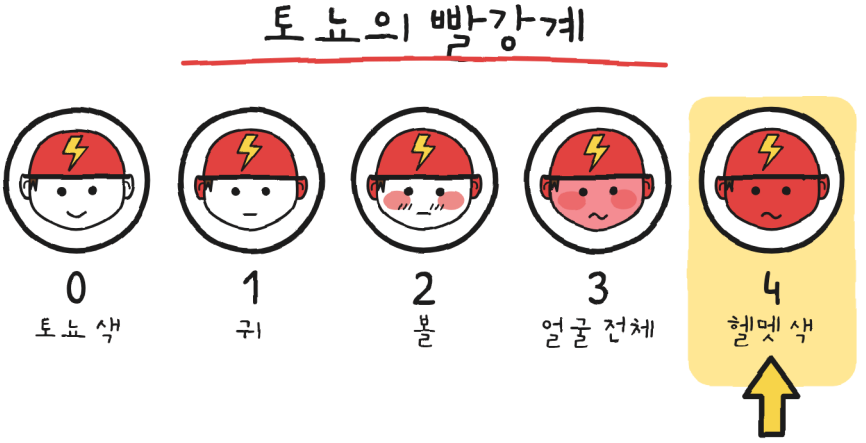
“우리 토...”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훌리타는 낱말 중간에서 입을 다무는 법이 없다. 토뇨를 보고 이유를 알았다.

라벨을 반만 읽었다. 나머지 반은 삼켰다. —J.

갑자기 빨개지는 사람이 있다. 토뇨는 아니다. 토뇨는 부분부분 빨개진다. 귀부터 시작했다. 그다음엔 볼. 그러고는 얼굴 전체가 차올라서 헬멧 끈까지 닿았는데, 아직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아 있었다. 제일 나쁜 단계, 얼굴과 헬멧이 구분되지 않는 때다. 2번 택배 떨림계 이후로는 변하는 걸 눈금 없이 보는 법을 몰라서, 적어 두었다.



훌리타가 나머지를 읽으려고 택배 쪽으로 팔을 뻗었다.

"그 택배는 기다려도 돼요." 토뇨가 아주 빠르게 말했다. "몇 년째 기다렸잖아요? 하루 더 기다리면 되죠. 열흘이어도요. 번개배송은 안 급해요."

번개배송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 들었다.

"오늘 밤엔 아무것도 열지 않아."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리고 선반은 허락 없이 손대지 않는다."

훌리타의 손이 라벨에서 손가락 하나 거리를 두고 허공에 멈췄다. 아무도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그러자 또 소리가 났다.

딸랑.

"문이 그랬어!" 훌리타가 내가 모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높았고 너무 일렀다.

문은 베라 아줌마가 간 뒤로 줄곧 닫혀 있었다.

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목록을 만든다. 딸랑 소리의 용의자:

1. 문. (훌리타의 의견. 닫혀 있고, 바람도 없고, 미는 사람도 없었음.)
2. 인도에 세워 둔 토뇨의 자전거, 번개배송 벨. ('따르릉' 하지 딸랑은 아니다. 그래도 벨이다.)
3. 고무 개구리. (훌리타가 곧바로 무죄를 선언했다. 개구리를 잘 안다고 한다.)
4. 3번 택배.

3번 택배는 예의상 맨 마지막에 넣었다.



나는 확인하러 인도로 나갔다. 가는 길에 개구리도 들고 갔다. 용의자는 멀리서 심문하는 게 아니니까.

비는 이미 그쳤다. 거리에서는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났고, 웅덩이마다 가로등이 하나씩 들어 있었다. 문을 열고 닫았다. 끼이익. 토뇨 자전거의 벨을 울렸다. 따르릉! 개구리를 눌렀다. 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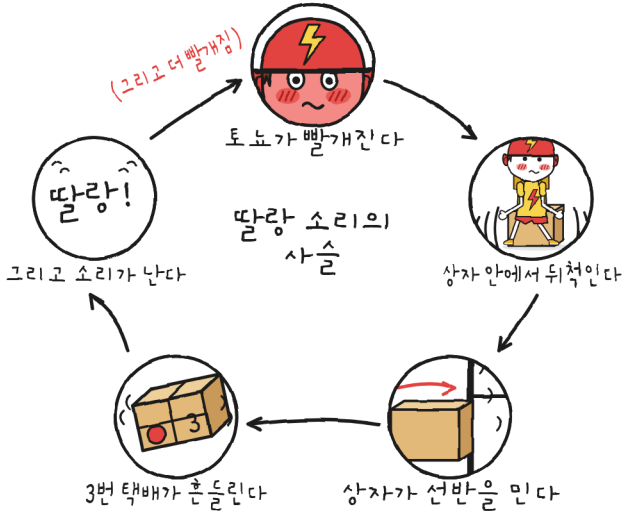
유리 건너편에서 훌리타가 손가락을 흔들며 아니라고 하고 있었다. 소리마다 똑같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동차 와이퍼처럼. 어느 것도 아니었다.

다시 들어가 개구리를 계산대에 놓았다. 내가 쳐다보는 걸 본 토뇨가 상자 안에서 몸을 뒤척였다.

딸랑.

나는 쭈그려 앉았다. 토뇨의 상자가 선반 다리에 기대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림을 그렸다. 동그라미가 나왔다. 아무리 돌려봐도 어디서 시작하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마법이 아니었다. 토뇨였다. 3번 택배 안에는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뭔가가 들어 있다.

나처럼. -J.

토뇨는 내 시선을 따라 선반 다리를 보았고, 자기 상자를 보았고, 가만히 있기로 했다.

고무줄을 팽팽히 당겨 놓은 시간만큼밖에 못 버텼다.

가만히. 그다음엔 더 가만히. 어찌나 가만히 있는지 '가만히' 하고 생각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고, 관자놀이를 따라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훌리타는 1분 넘게 말을 안 하고 있었다. 훌리타에게는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과 같은 일이라서, 언젠가는 입에서 제일 가까이 있던 말을 들고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마련이다.

"우리 토뇨가 누구야?"

토뇨가 펄쩍 뛰었다. 상자가 다리를 밀었고, 선반이 흔들렸고, 3번 택배가 딸랑! 하고 울렸다. 어떤 딸랑도 받을 자격이 없는 세기로. 마라 아줌마는 셋까지 세는 사람처럼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냥 질문이었는데." 훌리타가 말했다. "질문은 선반을 안 밀어."

이번 건 밀었다.



"나였어." 토뇨가 자기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릴 때."

너무 작은 소리여서, 나보다 토뇨 가까이 계산대에 있던 개구리가 더 잘 들었을 것이다.

훌리타가 입을 벌렸다. 질문들이 줄을 서 있는 게 보였다. 일요일 아침 빵집 앞처럼, 맨 앞 질문은 벌써 손에 돈을 쥐고. 그러다 훌리타는 토뇨를 보았고, 토뇨는 계속 운동화를 보고 있었고, 훌리타는 입을 다물었다.

"더는 안 물어볼게." 훌리타가 말했다.

힘들었을 것이다. 발에서 티가 났다. 탁, 탁, 탁, 가게 바닥에.

안 한 질문: 아홉 개. 다 적어 놨어. —J.

"그런데 왜 한 번도 전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마라 아줌마에게 물었다.

"열두 번 가져다줬어." 도장을 셀 필요는 없었다. "라벨을 봐. 길도 없고, 번지도 없고, 성도 없어. 찾을 수 있는 우리 토뇨는 다 시도해 봤지."

아줌마는 기억을 더듬어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았고, 나는 듣는 대로 그렸다. 진짜 이름이 토니토이고 라벨을 밟아 버린 카나리아 한 마리: 무효. 71세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라벨을 두 번 읽더니 "나도 그러고 싶구나." 하고는, 쇼윈도를 들여다보듯 택배를 바라보았다. 이름이 옆구리에 칠해진 운하의 작은 배도 서명하지 않았다. 손이 없으니까.



1. 카나리아 한 마리. (라벨을 밟았다. 안 된다.)
2. 안토니오 할아버지, 71세. ("나도 그러고 싶구나.")
3. 운하의 작은 배. (손이 없다.)

“그럼 토뇨는요?” 훌리타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시도했을 때는 토뇨를 몰랐어.” 마라 아줌마가 토뇨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어릴 때 뭐라고 불렸는지 말해 주지 않았거든.”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 밑에서 보라색 천을 꺼내 3번 택배를 덮었다. 앵무새를 재우려고 새장을 덮듯이. 그러고는 토뇨에게 잠깐 일어나 달라고 하더니 토뇨의 상자를 선반에서 두 뼘 떼어 놓았다.

“이렇게. 이제 마음껏 움직여도 돼.”

토뇨는 가 버릴 수도 있었다. 문 앞에 자전거가 있었다. 10분이면 동네 반대편에 가 있었을 것이다. 토뇨는 다시 앉았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적어 둔다.

그리고 토뇨의 상자에는 등받이가 없어서, 하나 그려 주었다. 높고, 약간 굽고, 작은 쿠션이 달린 것으로, 연필로, 점선으로.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등받이 (내 생각)’.

아무도 너한테 등받이 그려 달라고 안 했어. —J.



문 닫을 시간, 토뇨는 맨 끝까지 남아 헬멧 끈을 채우고 있었다. 번개배송에서라면 중대한 위반일 만큼 느리게. 마라 아줌마는 불을 하나씩 끄고 있었다. 보라색 천은 맨 위 선반의 택배 위에 그대로 덮여 있었다.

“아줌마. 내일 그 얘기 하러 올게요. 우리끼리요.”

“얘네 둘은 가게 사람이야.” 마라 아줌마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토뇨는 우리를 보았다. 먼저 훌리타를, 그다음 나를. 나는 걸상에서 허리를 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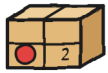
"얘네는 괜찮아요." 토뇨가 말했다. "하지만 번개배송 사람은 안 돼요."

토뇨는 나가서 웅덩이 사이로 자전거를 끌고 멀어졌다.

딸랑 소리에는 이제 주인이 있었다. 주인이 그걸 원하는지는 아직 몰랐다.

토뇨를 어떻게 도울지 난 알아. —J.

그게 걱정이다.



제2장

좋다고는 안 했어

일요일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는다. 그 일요일, 마라 아줌마는 셔터를 반쯤만 올려서 허리를 숙여야 지나갈 높이로 두고, 거기에 손으로 쓴 팻말을 걸었다.

휴무 (너만 빼고).

토뇨는 11시에 왔다. 들어오기 전에 길 양쪽을 살폈다. 길을 건너기 전처럼. 번개배송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토뇨는 가방이 스치지 않게 가슴에 바짝 붙이고 셔터 밑으로 허리를 숙였고, 가게는 아무 소리도 없이 토뇨를 삼켰다.

우리는 10시 반에 왔어. 혹시 몰라서. —J.

나는 팻말을 두 번 읽었다. 어디에도 '그리고 훌리타'나 '그리고 구니'는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마라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왼쪽 눈썹만 치켜올린 채 문을 열어 주었고, 우리는 들어갔다.

우리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얼굴로 걸상에 앉았다. 그런 얼굴은 나만큼 못하는 사람이 없다.

마라 아줌마는 3번 택배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천을 벗겼다.

"3번 택배. 우리 토뇨에게. 너니?"

"예전엔요."

"그거면 됐어. 받을래?"

토뇨는 상자를 쳐다보았다. 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다고는 안 했어요."

"싫다고도 안 했잖아."

"좋다고는 안 했다고 했어요."

나는 거기 있게 해 달라고 좋다고 말한 적이 많다. 토뇨는 그 말을 하지 않은 채 거기 있었다. 나는 걸상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세 문장이야." 훌리타가 속삭였다. "그런데 하나도 '응'이 아니야. 세어 봤어."

마라 아줌마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토뇨는 뜨거운 냄비를 잡듯이 상자를 잡았다. 두 손으로, 놓고 싶은 마음으로.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돌려 보았다. 귀에 가져가서 살짝 흔들었다.

딸랑.

토뇨는 얼른 상자를 놓고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집에 가져가면 어때요?" 훌리타가 말했다. "받는 사람 집에서 택배가 자면 이미 배달된 거잖아요. 논리적으로요."

"돌아가는 도장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아."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잉크로 움직이지."

"도장이랑 나는 생각이 달라요." 훌리타가 중얼거렸다. 내가 들어 본 중에 항복에 제일 가까운 말이었다.

분명히 해 두려고 표를 하나 만들었다. 제목은 배달로 인정될까?

- 쳐다보기: 아니.
- 손에 들기: 아니.
- 집에 가져가기: 아니.
-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라벨에 서명하기: 맞음.

"이 배달은 너희 거야." 마라 아줌마가 훌리타와 나에게 말했다. "천둥 때처럼. 조건은 세 가지."

아줌마는 손가락으로 꼽으며 말했다.

1. 너희는 상자를 열지 마. 그리고 라벨은 붙여 둬.
2. 3번 택배는 토뇨가 달라고 할 때만 가게 밖으로 나가.
3. 받는 사람은 원하면 서명해. 서명하지 않으면 택배는 해 뜰 때 돌아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훌리타가 수업 시간처럼 손을 들었다.

"원하지 않으면요?"

"그럼 영영 안 하는 거지."

영영은 배달 기한이 아니야. —J.

토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훌리타가 시간을 쟀다. 4분이었다. 번개배송에는 거의 배달 반 건이다. 그 4분 동안 토뇨는 택배를 보았고, 문을 보았고, 자기 손을 보았다. 우리는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게 고마웠다.

"가져갈게요." 토뇨가 마침내 말했다. "닫은 채로요. 생각해 보려고요. 일단은요."

"네가 달라고 하는 거니?" 마라 아줌마가 물었다.

"제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말을 못 하도록 출발 확인표를 만들었다.

- 상자: 닫힘. 맞음.
- 라벨: 붙어 있음. 맞음.
- 요청한 사람: 토뇨. 맞음.
- 서명: 아직 없음.

밖은 폭풍이 지난 일요일의 햇살이어서, 모든 게 막 닦아 낸 것 같았다. 토뇨는 3번 택배를 자전거 바구니에 넣었고, 손을 놓는 순간 소리가 났다. 딸랑.

토뇨는 번개배송 벨이 달린 핸들을, 회색의 동그란 벨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왜?" 훌리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냐."

그러고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갔다. 토뇨는 걸어 다니는 일이 거의 없다.

그 아무것도든 뭔가 헛어. 도와줘야 해. —J.

문가에서 보니 모퉁이에 번개배송 자전거 두 대가 서 있었다. 노란 가방을 멘 여자아이는 허리까지 오는 땋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주 덩치가 큰 아이가 있었다.

“토뇨! 바구니에 뭐 들었어?” 땋은 머리가 소리쳤다.

“배달할 거.”

“누구한테?”

“손님한테.”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토뇨는 바구니 안의 상자를 천천히 돌려서, 라벨이 자기 쪽을 보게 했다.



‘번개배송 사람은 안 돼요’가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블라인드를 올려 두었다. 우리 집은 가게 맞은편이다. 3번 택배가 돌아온다면 내가 볼 것이다. 창문 앞에 의자 두 개를 놓았다.

하나는 나, 다른 하나는 아주 작은 것, 알람시계용. 가게 문 위쪽의 작은 창, 마라 아줌마가 그걸 위해 열어 두는 그 창(첫날 나는 우편함인 줄 알았다)은 어둡고 가만한 네모였다.

"구니?" 우리 엄마가 복도에서 말했다. "안 자고 뭐 하니?"

"택배를 지켜보고 있어."

"아. 그래. 그래도 잠옷은 입고 지켜보렴."

처음 20분은 작은 창을 보았고, 그다음 20분은 알람시계를 보았고, 나머지 밤은 공책을 보았다. 기다릴 때는 손으로 할 일이 필요해서. 그래서 창턱 위에서 가로등 불빛으로 토뇨의 자리를 개선했다. 버전 1은 토요일의 등받이였고, 버전 2에는 팔걸이와 컵 놓는 곳으로 둥근 구멍이 있다. 컵도 그렸다. 냅킨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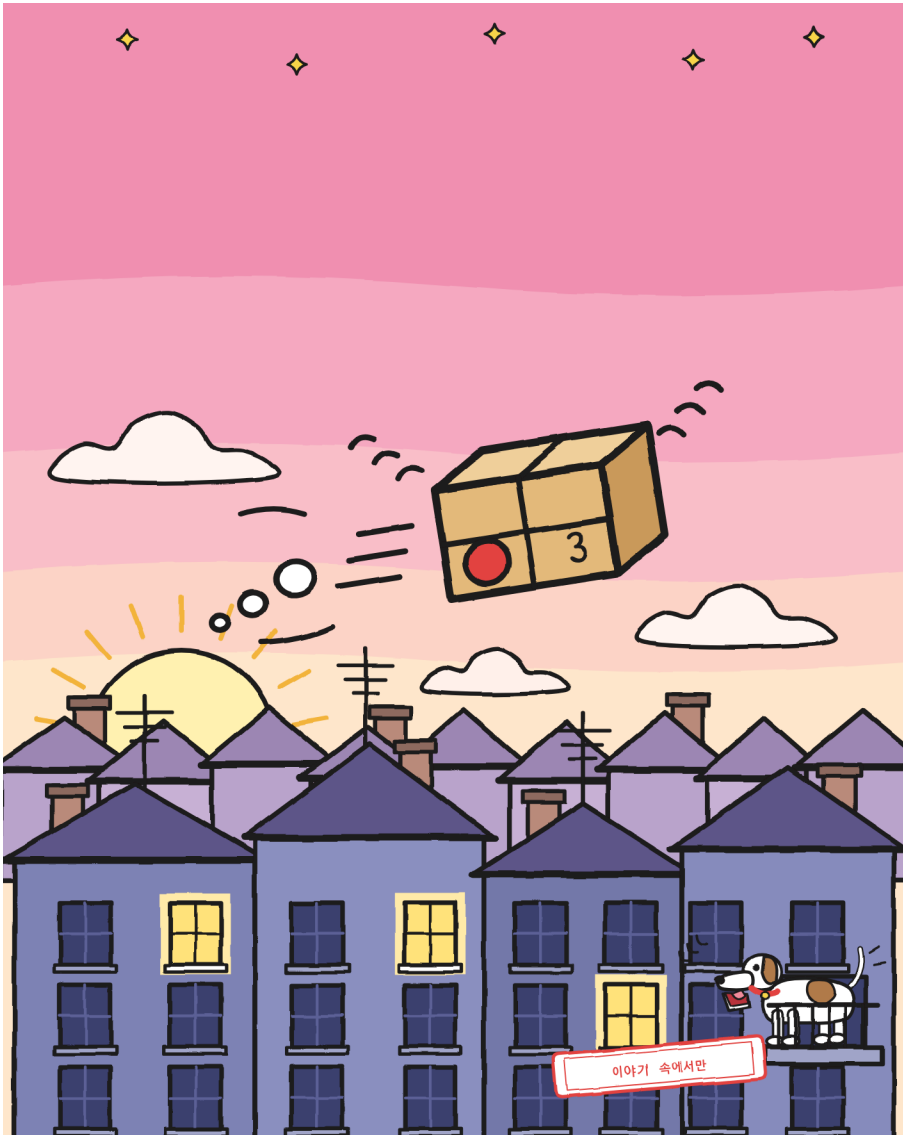
훌리타도 같이 지켜보고 싶어 했지만, 훌리타네 창은 안뜰로 나 있고, 안뜰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건 널어 놓은 빨래뿐이다.

새벽에는 눈으로 보기 전에 귀로 들렸다.

딸랑, 딸랑, 딸랑.

지붕 위로, 서두르지 않고 다가왔다. 아이스크림 수레가 아직 어느 모퉁이에 설지 정하지 못했을 때 내는 소리 같았다. 창문 하나에 불이 켜졌고, 또 하나, 또 하나. 셋이었다. 누가 출석을 부르는 것처럼. 4번지 개가 짖었다. 날아다니는 건 택배든 비둘기든 다 짖는 개다. 그러고서 보았다. 분홍빛 하늘을 등지고 작고 네모난 덩어리가 우리 동네 길을 내 창문 높이에서 가로질러, 가게 문 위쪽의 작은 창으로 쏙 들어갔다. 안에서 선반에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마지막 딸랑, 더 짧은 소리로. 누가 열쇠를 탁자에 내려놓을 때 같았다.



“저거였어?” 우리 엄마가 복도에서 물었다. 아직 잠에서 다 깨어나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저거였어.”

“그럼 이제 아침 먹으러 가자.”

나는 잠시 더 창가에 있었다. 엄마가 다시 부르자 아침을 먹으러 갔다.



학교가 끝나고 가게에 갔다. 3번 택배는 자기 선반에 있었고, 아무도 찍지 않았는데 도장이 하나 더 찍혀 있었다. 빨갛고,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열세 번째 도장.

다시 선반에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벌이 아니야.”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규칙이야.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는 거야.”

도장이 열세 개. 이러다간 상자가 안 보이겠어. —J.

토뇨는 5시 20분에 왔다. 배달을 마치고 온 것이다. 돌아왔냐고는 묻지 않았다. 집 위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토뇨는 아직도 선반에서 두 뼘 떨어져 있는 자기 상자에 앉아서, 택배를 보지 않은 채로 보았다.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아는 누군가를 볼 때의 그런 방식으로.

이건 내가 보지 못했다. 토뇨가 얘기해 주었다.

“현관 매트에 두었어. 밤새도록.”

토뇨가 내게 해 준 이야기



"왜 집 안에 안 들였어?" 훌리타가 물었다.

"집에는 나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이미 충분히 많아."

화내는 기색 없이, 주소를 말할 때의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훌리타는 '충분히'가 몇 명인지 묻지 않았다. 발이 딱 한 번, 탁, 하고 울렸다.



"서명 하나면 다 해결될 텐데." 토뇨가 가고 나자 훌리타가 말했다. "딱 하나. 2초면 돼. 내 서명으로 시간을 재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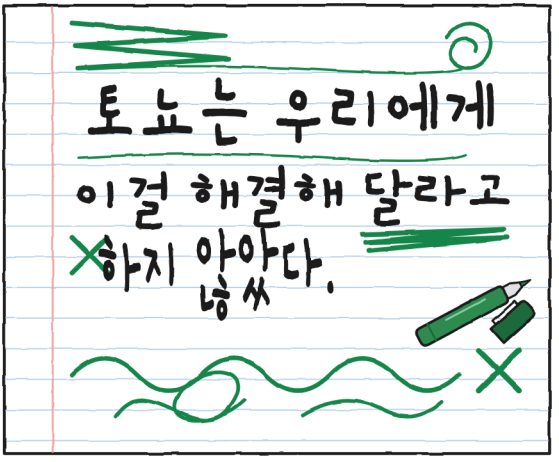
사실이었다. 훌리타는 낱장에 세 번 해 보였다. 늘 쓰는 J로. 2초, 2초, 그리고 삐뚤게 나온 한 번은 2초 반.

나는 공책을 펴고 볼펜으로 꾹꾹 눌러 썼다. 초록색이 덮지 못하게.

토뇨는 우리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

너무 세게 눌러서 그 문장은 다음 장에도 도드라지게 읽혔다. 훌리타가 초록색 매직펜을 꺼냈다. 줄무늬로, 소용돌이로, 가위표로, 물결 구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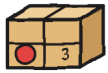
덮어 보았다. 초록색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 문장은 가려지지 않았다. 밑에 그대로, 글자 하나 빠짐없이, 종이에 새겨진 채 남아 있었다.



읽었어. 동의 안 해. 일단은. —J.

나는 훌리타를 쳐다보았다.

다른 생각이 있어. 그런 눈으로 보지 마. —J.



제3장

사인

화요일, 학교가 끝나고 보니 가게 앞 인도에 탁자가 하나 나와 있었다. 탁자는 혼자서 길에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이 탁자는 차려입고 있었다. 바닥까지 닿는 노란 식탁보, 훌리타의 글씨로 쓴 팻말, 그리고 한가운데 천을 덮어 놓은 네모나고 아주 가만한 덩어리. 누가 질문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덩어리였다.

팻말에는 초록색으로 배달원 사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밑에는 오늘. 그리고 그 밑에 더 작게: 동네에서 제일 빠른 사람들.

탁자 뒤에는 훌리타가 두 손을 등 뒤로 하고, 입장권을 파는 사람의 진지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진열창 너머에서 마라 아줌마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받는다기보다 듣고 있었다. 천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전화가 길어질 때 아줌마가 쳐다보는 곳이 거기다.

턱으로 덩어리를 가리켰다.

"받침대야." 내가 아무것도 묻기 전에 훌리타가 말했다. "사인하기 편하게. 나 사인 모으거든."

받침대는 내가 아는 한 바이올린을 켤 때 악보를 올려놓는 물건이다. 사인하는 데는 필요 없다. 하지만 훌리타가 너무 자신 있게 말해서, 10초 동안 나는 바이올린에 대해 아는 것을 의심했다.

"언제부터 사인을 모았는데?"

"어제부터."

어제 훌리타는 다른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 생각에는 식탁보가 있었다.

받침대 위에는 줄이 쳐진 종이가 한 장 있었고, 맨 아래에 네모 칸이 있었다.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다. 사실은 가위로 오려 낸 작은 창이었다. 나는 허리를 숙였다. 식탁보에도 똑같은 창이 있었다. 바로 그 밑에.

한쪽 모서리를 들어 올렸다. 받침대는 눕혀 놓은 3번 택배였다. 라벨이 위를 보고 있었다. 우리 토뇨에게, 반송 도장 열세 개, 그리고 식탁보의 구멍 바로 밑에는 서명 하나 크기의 하얀 종이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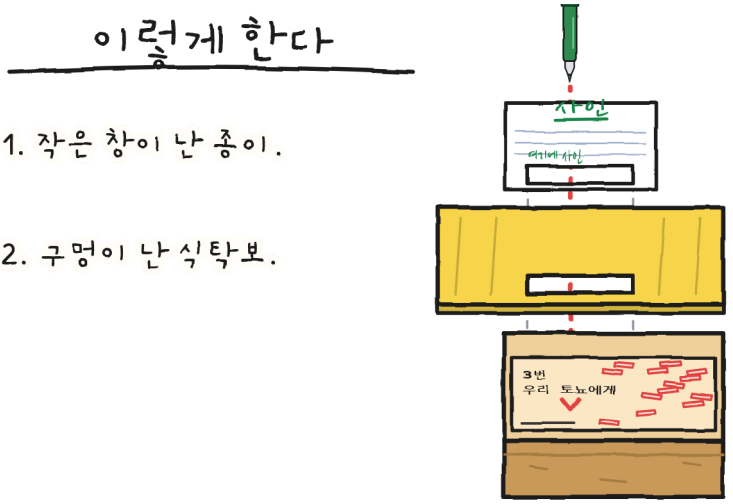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야 완전히 이해했다. 나는 뭐든 그렇게 이해한다.

"내 매직펜으로." 훌리타가 신이 나서 속삭였다. "지워지지 않는 잉크야. 내일부터는 안 돌아와. 우리가 보여 줄 때까지 토뇨는 몰라. 깜짝!"

훌리타는 선물을 줄 때의 얼굴이었다. 아주 잘 골랐다고 믿는 얼굴. 매직펜을 하도 써서 손가락 끝이 초록색이었다.

마라 아줌마의 조건이 떠올랐다. 두 번째는 외우고 있었다.

"토뇨는 3번 택배를 가게 밖으로 내 달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조건 2번이야."



"고마워할 거야."

"마라 아줌마는?"

"전화 중이었어. 사인 탁자라고 말씀드렸어. 진짜 사인 탁자니까."

"받침대는?"

"그건 안 물어보시던데."

플로라 아줌마와 여덟 번째 씨앗 일을 말해 주었다. 훌리타는 플로라 아줌마가 너무 일찍 서명하게 놔두지 않았다.

"그건 달라. 그건 반쯤 한 배달이었잖아. 이건 지름길이야."

"그럼 네가 해." 내가 말했다. "난 안 해."

나는 가게 계단에 앉았다. 탁자를 등지고 팔짱을 낀 채로.

계단에 앉았다. 아주 의젓하게. 하나도 안 도왔다. —J.



번개배송은 우리 길을 5시 10분에 지나간다. 보이기 전에 소리로 먼저 알 수 있다. 벨이란 원래 그렇다. 셋이었다. 한 줄로. 맨 앞은 늘 그렇듯 조이. 그다음은 옷장이라도 싣고 가는 사람처럼 페달을 밟는 덩치 큰 브루노. 맨 끝에는 약간 떨어져서 토뇨. 줄에 자전거가 셋인데 토뇨 것만 다른 줄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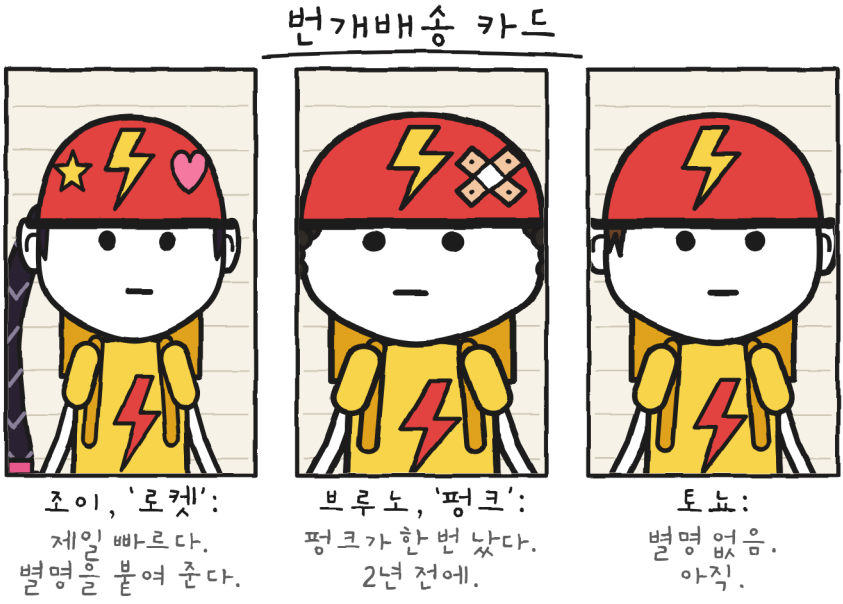
나중에 도착한 모습 그대로, 한 명씩 그렸다.

'로켓' 조이는 허리까지 오는 땋은 머리를 한 아이다. 일요일에 토뇨에게 바구니에 뭐가 들었냐고 물은 그 아이. 제일 빠르고, 별명을 붙이는 사람이다. 브루노의 바퀴에는 때운 자국이 있고, 자전거 프레임에는 혹시 몰라 공기 펌프가 달려 있다.

조이는 팻말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다.

"사인? 우리 거?" 조이가 말하고는 자전거에서 내렸다.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사인을 부탁한 적이 없어. 그래서 통해. —J.



조이가 첫 번째로 사인했다. '조이'의 ㅇ 자리에 별을 그려 넣고. 브루노는 '브루노'라고 썼다. 천천히, 이 사이에 혀를 끼운 채, 글자마다 동그랗게. 조이가 볼펜을 빼앗아 그 이름에 줄을 쫙 긋고 옆에 '펑크'라고 썼다.

"번개배송에서는 별명은 안 지워." 브루노가 화내지 않고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내가 한 번 펑크 났거든."

2년 전 일이다. 바퀴 하나치고는 너무 큰 펑크다.

토뇨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았다. 일요일에 3번 택배를 보던 것과 똑같이 탁자를 보고 있었다. 멀리서, 두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토뇨 차례야." 훌리타가 말했다. "여기 아래 네모 칸에.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야."

훌리타는 토뇨에게 초록색 매직펜을 주었다.

토뇨에게 사인을 해 달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토뇨는 자전거에서 내려 허리를 쭉 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버렸다. 계단에서 전부 보고 있었다. 입안 가득 '내 일이 아니야'를 문 채.

나는 일어났다. 결심한 것도 아니었다. 몸이 그랬다. 딸꾹질처럼, 나한테 묻지도 않고.

"토뇨,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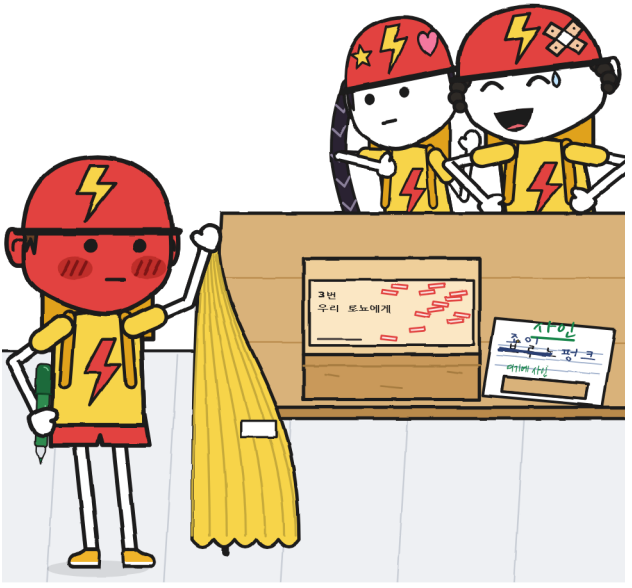
늦었다. 토뇨가 사인하려고 받침대를 확 끌어당겼고, 식탁보 밑에서 뭔가가 나보다 먼저 말했다.

딸랑!

1초 동안 모든 게 멈췄다. 종이, 작은 창에서 손가락 하나 거리에 멈춘 매직펜을 든 토뇨의 손, 덩어리 위의 네 얼굴. 나는 아직 탁자에 닿지 못했다.

토뇨가 식탁보 한쪽 모서리를 손가락 두 개로 들어 올렸다.


사인
좁은 통로
제에 사인
따랑!



“우-리 토-뇨-에-게.” 조이가 상을 발표하듯이 천천히 읽었다.

“우리 토뇨?” 브루노가 말하고 웃었다.

조이는 웃지 않았다. 조이는 생각하고 있었다.

훌리타가 작은 창을 내려다보았다.

토뇨는 소리치지 않았다. 매직펜 뚜껑을 천천히,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닫아서 종이 위에 내려놓았다. 서명하지 않은 채.

“번개배송은 함정에 서명하지 않아.”

그러고는 핸들을 잡고 걸어서 떠났다. 아무도 페달을 밟지 않을 때 자전거가 내는 시계 같은 소리를 내며.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다. 나도.

목덜미까지 헬멧 색이었다. 하지만 부끄러움의 빨강이 아니었다. 다른 빨강이었다.

빨강끼에는 그런 빨강의 숫자가 없어. -J.

마라 아줌마가 보라색 천을 들고 나왔다. 문가에서 멈춰 어깨 너머로 선반의 빈자리를 보고, 탁자를 보고, 훌리타를 보았다. 누가 그랬냐고는 묻지 않았다.

3번 택배를 덮어서 두 팔로 안아 올렸다.

"이 택배는 배달된 게 아니야." 아줌마가 조이와 브루노에게 말했다. "그리고 라벨에 뭐라고 쓰이든 그건 토뇨가 정할 일이야."

브루노는 웃음을 멈추고 있었다. 조이는 천으로 덮인 덩어리를 한 번 돌아보았다. 둘은 자전거에 올라 벨을 울리지 않고 갔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런 건 처음이었다.



나는 훌리타가 치우는 걸 도왔다. 식탁보, 팻말, 사인 두 개와 구멍이 있는 종이. 매직펜은 훌리타가 뚜껑을 열지 않은 채 챙겼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는 하지 않았다. "괜찮아"라고도 하지 않았다. 괜찮지 않았으니까.

식탁보를 둘이서 한 귀퉁이씩 잡고 접었다. 모서리를 천천히 맞대었다. 구멍이 한가운데에 놓였다.

"넌 아무것도 안 했어." 훌리타가 말했다.

나를 빼 주려고 한 말이었다. 선물이었다. 한 번 접는 동안 나는 그걸 그냥 받을 뻔했다. 나는 아무것도 오리지 않았고, 어떤 선반에서도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았다. 있지도 않은 주름을 폈다. 내 쪽 귀퉁이를 훌리타 쪽에 맞췄다. 계단에서 탁자가 있던 자리까지 인도의 보도블록을 세었다.

열두 개도 안 됐다. 오후 내내 눈앞에 있었다.

"내가 늦게 알렸어." 식탁보를 보며 말했다. "더 일찍 말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마라 아줌마를 부르든가."

훌리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게서 식탁보를 받아 필요한 것보다 한 번 더 접어서 돌려주었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 마라 아줌마에게 혼자서 다 말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는 문가에 식탁보를 안은 채 서 있었다. 거기서 다 들렸다. 작은 창, 식탁보, 선반, 전화. 마라 아줌마는 끝까지 들었다.

"토뇨에게는." 마라 아줌마가 훌리타의 말이 끝나자 말했다. "네가 얘기해."



수요일에 토뇨는 5시 10분에 지나갔고 멈추지 않았다. 앞만 보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런 속도는 그 자리에 없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다. 5시 20분에 다시 지나갔다. 오는 소리가 들렸고, 멈추지 않는 소리가 들렸고, 가는 소리가 들렸다.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인 배달원이 같은 길을 세 번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건, 가게에 안 들어가는 아주 이상한 방법이다. 문을 두드리는 것과 꽤 비슷했다.

나는 같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세 번째에는 훌리타가 인도 한가운데에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다. 토뇨를 두 번 지나가게 놔둔 것이다.

훌리타는 종이를 두 손으로 얼굴 높이에 들었다. 공항에서 사람을 기다리며 이름을 적어 든 팻말처럼. 토뇨는 자전거에서, 한 발을 땅에 댄 채, 만지지 않고 그걸 읽었다. 세 문장과 한 단어. '네 택배를 꺼냈어.' '너를 속이려고 했어.' '네 라벨을 다른 애들한테 보여 줬어.' 그리고 그 밑에, 혼자, 더 크게, '미안해.' 나는 그대로 알고 있다. 훌리타가 나중에 내 공책에 옮겨 적었으니까. '하지만'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도, '도와주려고'도 없었다. 찾아보느라 두 번 확인했다.

서명은 '—훌리타'. 훌리타는 뭐든 J 하나로 서명한다. 이번에는 글자를 다 썼다.

"그래. 읽었어." 토뇨가 말했다.

"나 용서해 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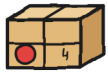
그건 종이에 없던 말이었다. 훌리타는 종이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꽉 쥐었다.

"읽었다고 했어."

토뇨는 발을 페달에 올리고 갔다. 이번에는 페달을 밟고,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훌리타는 거리를 바라보다가, 종이를 접지 않은 채 멜빵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오후 가게에서 토뇨의 상자는 빈 채로 있었다.

이름을 다 써서 서명했어. 그 정도는 해야지. —J.



제4장

작은 자전거

목요일, 토뇨는 길 양쪽을 살피지 않고 가게로 들어왔다.

일요일에는 들어오기 전에 이쪽저쪽을 살폈다. 차가 못 미더운 채로 길을 건너려는 사람처럼. 이번에는 헬멧을 쓴 채 곧장 들어왔다. 이제 번개배송에는 숨길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다. 알아야 할 두 사람은 화요일에, 식탁보까지 곁들여서 이미 알았으니까.

우리는 토뇨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화요일 이후로 훌리타와 나는 말을 적게, 조심해서 했다. 둘이서 유리컵이 가득 담긴 쟁반을 같이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훌리타가 소리 내어 계획 세우기를 그만둔 게 제일 티가 났다. 냉장고가 멈춘 뒤에야 그게 윙윙거리고 있었다는 걸 아는 것처럼.

토뇨는 자전거를 한 대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진짜 자전거는 밖에 벽에 기대 세워 두었다. 이건 빨간색이었고, 너무 작아서 토뇨는 그걸 바게트 하나 들듯이 들고 있었다. 핸들에는 창고 먼지가 솜털처럼 앉아 있었다.

토뇨의 자전거가 아니었다. 아니, 맞았다. 예전의 토뇨 것이었다.

토뇨는 앉지 않고 자기 상자 옆을 지나갔다. 상자는 마라 아줌마가 토요일에 놓아 둔 그대로 있었다. 뒤집힌 채, 걸상들 옆에, 비어서. 훌리타가 걸상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두 번 그랬다.

"일요일부터 머릿속에 딸랑 소리가 하나 있어요." 토뇨가 마라 아줌마에게만 말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제대로 기억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열어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진열창이 없는 데서요."

마라 아줌마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3번 택배를 선반에서 내려 우리를 뒷방으로 데려갔다.

뒷방에는 갓 없는 전구 하나, 노끈과 포장지가 놓인 선반들, 벽에 쌓아 올린 배달 자루들, 그리고 작은 탁자가 하나 있었다. 마라 아줌마는 그 위에 상자를 놓았다.

"열어서 보는 건 서명이 아니야." 마라 아줌마가 토뇨를 보며 말했다. 우산을 건네듯이. 비가 와서가 아니라 혹시 몰라서. "서명 없이는 해 뜰 때 돌아와."

토뇨는 고개를 끄덕였다.

훌리타는 문틀에 발 하나씩 걸치고 문가에 서 있었다.

"나 있어도 돼?" 훌리타가 물었다.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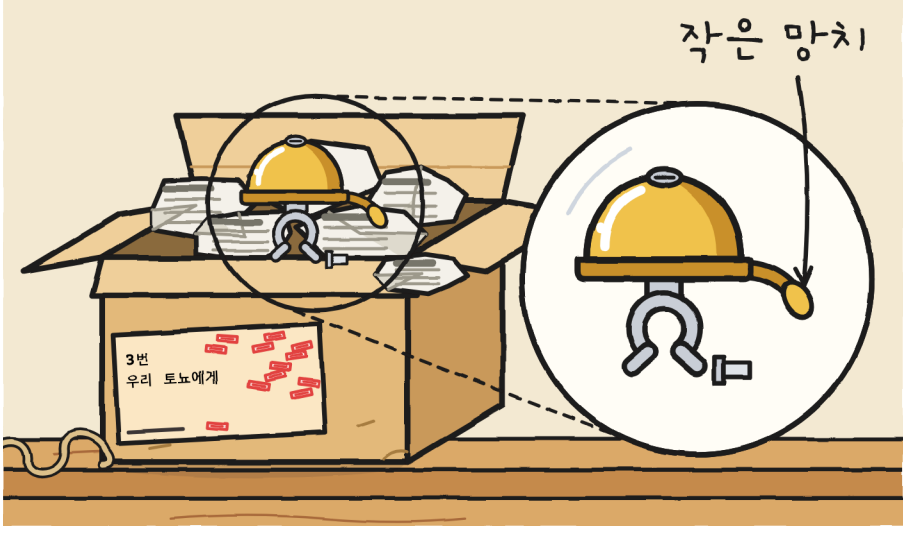
토뇨는 한참 걸렸다. 얼마나였는지는 모른다. 시간 재는 건 훌리타의 일인데, 훌리타는 바빴으니까.

"아무것도 안 만지면."

"상자도, 그 얘기도."

훌리타는 구석의 자루 위에 앉았다.

토뇨는 헬멧을 벗어 못에 걸었다. 헬멧을 벗으니 눌린 밤색 머리가 보였고, 귀는 화요일만큼 빨갛지 않았다. 그러고는 노끈을 풀었다. 포장용 노끈이었는데 종이와 같은 색이 되어 있었다. 안에는 신문지가 있었다. 너무 오래돼서 저절로 찢어졌다. 토뇨는 손끝으로 조심조심 펼쳤다. 그리고 종이 사이에서...



자전거 종이었다. 작고 금빛이고, 용수철에 달린 작은 망치가 있어서 살짝만 흔들어도 소리가 났다.

1번 택배는 물었다. 2번 택배는 달렸다. 3번 택배는 소리만 난다.

용도 없고 다리도 없어. 좋 하나. 마음에 들어. —J.

종 밑에는 네 번 접은 쪽지가 있었다. 토뇨가 탁자 위에서 그걸 폈다. 글씨는 빽빽하고 삐뚤었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쓴 것 같았다. 한쪽 구석에 얼룩이 하나 있었다.

'우리 토뇨야: 다시 소리가 날 거라고 했지. 이제 소리가 나. 늦어서 미안해. —R.'

그리고 그 밑에,

'추신: 그새 컸을지도 모르겠네. 종은 그대로야.'

토뇨는 그걸 두 번 읽었다.

"글씨 진짜 못 쓴다." 토뇨가 말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꽤 오랫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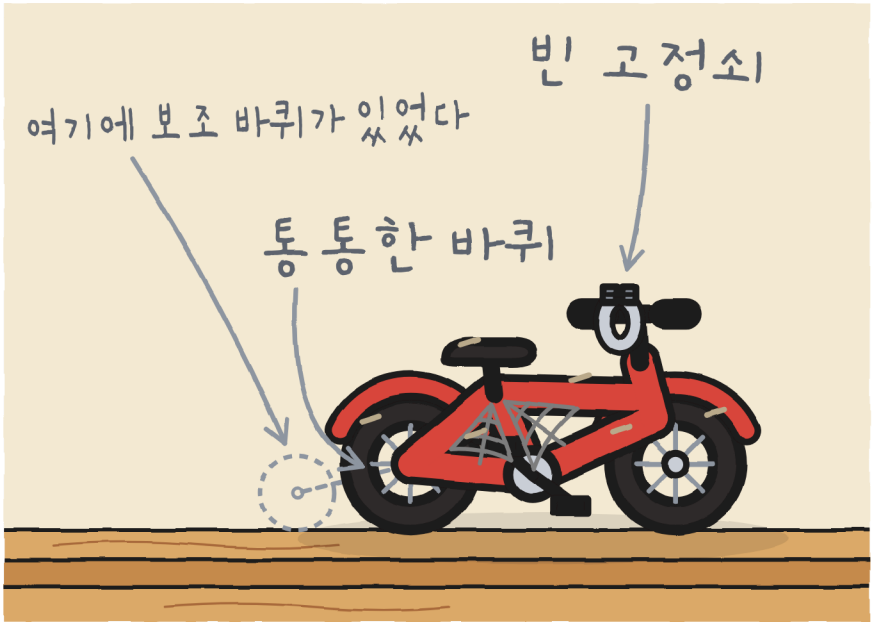
R.은 약속을 늦게 지켜. 플로라 아줌마가 그랬어. 얼마나 늦는지는 말 안 했어. —J.

그러고 나서 토뇨는 상자를 치우고 작은 자전거를 탁자 위에 올렸다.

나는 자전거를 그렸다. 화살표를 달아서.

굵은 바퀴. 뒷바퀴 옆에는 보조 바퀴가 있던 자국. 그리고 핸들에는 나사가 달린 빈 고정쇠.

"내 거였어." 토뇨가 말했다. "이 종이 달려 있었어. 어느 날부터 소리가 안 나고 딸깍 소리만 났어. 누가 그랬어. '이리 줘, 우리 토뇨, 내가 고쳐서 돌려줄게.'"



"누가?" 훌리타가 저도 모르게 말하고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얼굴은 기억 안 나. 종은 기억나. 그리고 오래 기다린 것도."

훌리타는 계속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집에서는 아직도 나를 우리 토뇨라고 불러." 토뇨가 말했다. "번개배송에서는 아니야. 번개배송에서 나는 토뇨야. 첫날 내가 카드에 직접 썼거든."

토뇨가 번개배송 볼펜으로 이름 칸에 토뇨라고 쓰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동네에서 다른 사람이 붙여 주지 않은 단 하나의 이름.

"근데 '우리 토뇨'가 뭐가 어때서?" 내가 물었다. 정말로 물은 거였다. 아무 속셈 없이. 질문은 나한테 딸꾹질 같다. 그냥 나온다.

"아무것도. 조이가 말하기 전까지는. 번개배송에서는 별명은 안 지워. 브루노를 봐."

"브루노는 화요일부터 나를 '우리 토뇨'라고 여섯 번 불렀어." 토뇨가 덧붙였다. "세어 봤어."

훌리타가 자기 구석에서 작아졌다.

아무도 어떻게 이어 가야 할지 몰랐다. 그때 훌리타가 물었다.

"아직도 들어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라 아줌마가 높은 걸상에서 누군가를 내려 주듯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탁자에서 바닥으로 내렸다. 토뇨는 자전거를 보았다. 마라 아줌마를 보았다. 그리고 앉았다.

맞았다. 대충은. 무릎이 귀까지 올라오고 팔꿈치는 옆으로 튀어나왔다.

마라 아줌마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웃음이었을 소리를 냈다. 그리고 토뇨도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토뇨가 웃는 건 처음 보았다. 화요일에 웃은 건 브루노였다. 이번에는 토뇨가 웃었다. 소리가 같지 않다.

빨강계: 0. 이것도 세는 거니까 적어 둬. —J.

나는 한 가지 생각이 났고, 그걸 말하는 게 돕는 건지 미는 건지 정해야 했다. 토뇨가 그렇게 앉아서, 이제는 자기 크기가 아닌 자전거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걸 보니, 그 차이는 머리카락 한 올만큼밖에 안 되어 보였다. 나는 충고가 아니라 정보로 말했다.

"지금 네 자전거에는 벌써 벨이 있잖아." 내가 말했다. "번개배송 벨. 이걸 꼭 달 필요는 없어. 간직해도 되고. 아니면 돌아가게 둬도 되고."

"알아." 토뇨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해 준 적이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자기 구석에서 훌리타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걸 마음에 담아 두는 게 보였다.

훌리타는 11분 동안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매직펜은 치워 두고 멜빵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11분이라는 건 나중에 훌리타가 직접 내 공책에 적어서 알았다.

11분. 허가 잠들어 버렸어. —J.

"혼자 해 보고 싶어." 토뇨가 말했다.

우리 셋은 밖으로 나갔다. 토뇨는 뒷방 문을 닫았다.

훌리타는 듣지 않으려고 가게 반대쪽 끝으로 갔다. 나는 듣지 않으려고 그림을 그렸다. 토뇨의 의자에는 이제 천 지붕이 있다. 그래도 들렸다. 마라아줌마는 이미 정리된 노끈을 정리했다.

딸랑.

토요일에 들었던 바로 그 딸랑 소리였다. 그러고는 또 한 번. 그러고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우리 셋 중 누구도 문을 보지 않았다.

토뇨가 나왔을 때는 한 손에 종을, 겨드랑이에 상자를 끼고 있었다. 작은 자전거는 뒷방 자루에 기대어 빈 고정쇠를 단 채 남았다.

"내일까지 가져갈게요. 서명 안 하고요."

"그럼 해 뜰 때 돌아와."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돌아오라고 해요. 하룻밤 갖고 있으면 어떤지 알고 싶어요."

"종을 상자 밖에 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물었다.

"한 번도 안 해 봤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아침 7시에 해 볼 생각도 없고."

토뇨는 전부 안에 도로 넣었다. 종도, 쪽지도.



금요일 새벽, 우리 길은 다시 소리를 냈다. 딸랑, 딸랑, 딸랑, 지붕 위로, 서두르지 않고. 같은 창문 세 개에 불이 켜졌다. 같은 개가 짖었다. 14번째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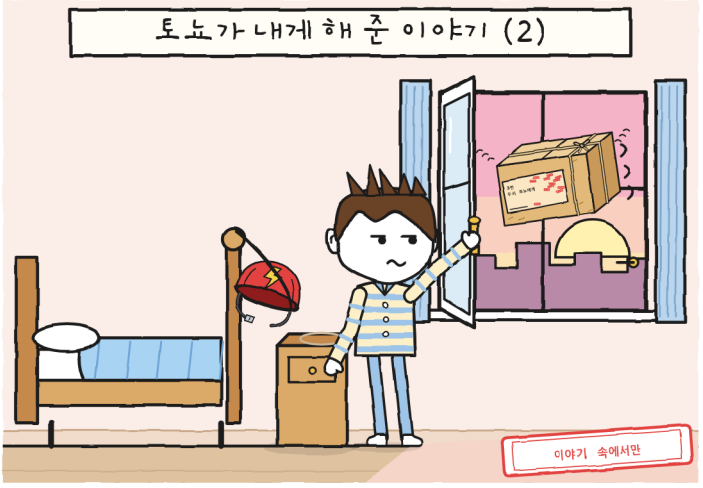
그전 일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날 오후 토뇨가 자기 상자에 앉아 바닥을 보며 얘기해 주었다.

"이번에는 현관 매트에서 안 잤어. 내 침대 옆 탁자에서 잤어. 해 뜰 때 유리창에 부딪히기 시작해서 창문을 열어 줬어."

"어때?" 내가 물었다. "하룻밤 갖고 있으니까."

토뇨는 한참 걸렸다.

"길어."



택배한테 창문을 열어 줬대. 예의도 바르지. —J.

그날 오후 나는 토쇼의 자전거 두 대를 나란히 그렸다. 지금 것에는 종을 그려 넣었는데, 아주 잘 어울린다. 밑에는 '전'과 '지금'이라고 썼다.

훌리타가 쪽지를 하나 내 그림 위에, 핸들 바로 위에, 막 그린 내 종을 가리게 붙였다.

아직 안 달았어. —J.

손톱으로 한쪽 귀퉁이를 떼어 보려고 했다.

훌리타 말이 맞았다. 조금 짜증 난다.



제5장

우리끼리

금요일 오후, 3번 택배는 선반 위에 있었다. 도장이 열네 개였다.

토뇨는 자기 상자에 앉아 멀리서 그걸 바라보았다.

훌리타는 이틀째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틀째 그게 뭔지 나한테 말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 있었다.

최악을 각오했다. 지난번에 훌리타가 비밀로 뭔가를 준비했을 때, 그 비밀에는 식탁보가 있었다.

이번에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식탁보가 없다는 것이었다. 탁자도, 받침대도, 가위로 오린 작은 창도 없었다. 줄이 쳐진 공책 한 장뿐이었다. 훌리타는 아무 말 없이 그걸 토뇨의 무릎에 올려놓고 벽까지 물러났다. 두 손을 등 뒤로 하고, 필요한 것보다 두 걸음 더 멀리. 세어 보았다.

선택지가 둘 있는 종이였다.

토뇨는 그걸 두 번 읽었다. 두 번째에는 B만. 나는 잠망경 같은 은밀함으로 토뇨의 어깨 너머를 들여다보며 세 번 읽었다. 함정을 찾으면서.



토뇨는 눈을 들어 마라 아줌마를 보았다.

"서명하면 누가 알아요?"

귀가 1단계가 된 채로 말했다.

"나. 그리고 이 서랍에서 안 나가는 내 기록 장부."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 서랍을 보일 만큼만 열었다. 고무줄로 묶어 둔 두꺼운 책이 있었다. 아줌마는 엉덩이로 서랍을 닫았다.

"번개배송에는요?"

"번개배송에는 말 안 해. 기록은 팻말이 아니야."

훌리타가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다. 마라 아줌마 뒤 벽에서는 초록색 팻말이 여전히 남은 택배 18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팻말에는 숫자가 적혀. 이름은 서랍에 넘아. —J.

토뇨가 자기 상자에서 일어났다. 상자는 텅 빈 소리를 냈다. 아무도 앉아 있지 않은 상자의 소리였다.

"B요."

훌리타는 펄쩍 뛰지 않았다. 안 뛰는 걸 나는 보았다.

주먹을 꽉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뒷방에서요." 토뇨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 둘이."

"나도?" 훌리타가 물었다.

"네가 제일 내가 서명하기를 바라잖아. 앞에 있는 게 나아."

3번 택배를 선반에서 내리는 건 내 몫이었다. 파란 걸상에 올라가 두 손으로, 숨도 쉬지 않고 내렸다. 국그릇을 가장자리까지 채워 나르는 사람처럼. 그래도 소리가 났다. 작은 딸랑. 예의를 차리는 딸랑. '실례합니다'라는 뜻의.



우리는 뒷방으로 돌아갔다. 토뇨는 헬멧을 벗어 자루 위에 올려놓았다. 끈이 늘어졌다.

나는 3번 택배를 탁자에 놓았다. 토뇨는 뚜껑을 열고 종과 쪽지를 다시 꺼냈다. 전구 밑에 놓았다. 종은 금빛으로, 옆으로 누워서, 작은 망치가 용수철 위에서 가만히 있었다. 쪽지는 펴서 손날로 문질러 평평하게 해 놓았는데, R.의 나쁜 글씨가 그 불빛 아래서는 그림처럼 보였다.

토뇨는 거스름돈을 세는 사람처럼 그것들을 천천히 보았다.

"서명하기 전에, 내가 뭘 서명하는지 본다." 아무도 보지 않은 채 토뇨가 말했다.

훌리타가 자기 티셔츠 색이 되었다.

훌리타는 토뇨에게 초록색 매직펜을 건넸다. 뚜껑을 닫은 채로. 뒤쪽을 토뇨에게 향하고 펜촉은 자기 쪽으로, 가위를 건넬 때처럼. 그러고는 구석으로 가서 자루 위에 아주 꼿꼿이 앉았다. 턱은 들고, 팔꿈치는 이상하게 구부린 채.

"뭐 해?" 내가 물었다.

"내 손 위에 앉아 있어. 안 도우려고."

말 그대로였다. 두 손을 허벅지 밑에, 양쪽에 하나씩 넣고 자루를 꽉 누르고 있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코끼리를 세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서 제때 알려 주는 연습을 해 두었다. 필요하면 쓰려고. 그날 오후에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공책을 덮어서 옆구리에 끼었다.

그러고는 다 적었다. -J.

토뇨가 매직펜 뚜껑을 열고 서명했다.

망설이지는 않았지만 오래 걸렸다. ㅌ. 크고. ㅗ. ㄴ. 그리고 ㅛ, 짧은 두 획을 천천히 그렸다. 또박또박 곧은 낱자 네 개.



한쪽 구석에 아무도 찍지 않은 도장이 하나 나타났다. 배달 완료.

라벨에는 '우리 토뇨'라고 적혀 있었다. 서명에는 '토뇨'.

"이래도 돼요?" 토뇨가 마라 아줌마에게 물었다. "같은 이름이 아닌데."

마라 아줌마는 손대지 않고 라벨을 위에서 아래로 읽었다.

"서명하는 건 받는 사람이야." 아줌마가 말했다. "그리고 받은 건 너야."

우리는 가게로 돌아갔다. 토뇨는 한 손에 종을 들고 헬멧을 다시 쓰고 있었다. 나는 공책을 덮은 채였다. 마라 아줌마는 전구를 끄고 맨 마지막에 왔다.

서랍을 열어 고무줄 묶인 책을 꺼내 배달을 적었다. 날짜 하나, 번호 하나, 그리고 낱자 네 개.

훌리타는 이미 파란 걸상을 들고 벽 쪽으로 가고 있었다. 늘 쓰는 그 걸상, 팻말에 닿으려고 올라서는 걸상. 그러다 딱 멈췄다. 걸상을 다시 바닥에, 다리를 아래로 해서,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팻말 바꿔도 돼?" 훌리타가 물었다.

토뇨에게 물었다. 마라 아줌마가 아니라.

토뇨는 팻말을 보았다. 주소를 확인할 때만큼 시간이 걸렸다.

"숫자만 적혀 있어."

"숫자만."

"그래."

훌리타는 걸상에 올라가 18을 한 번에 그어 지우고, 그 옆에 지워지지 않는 초록색으로 커다란 17을 썼다.

내가 먼저 물어봤어. 이건 꼭 기록해 둬. —J.

토뇨는 인도로 나가 자전거를 벽에 기대 세우고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냈다.

"달 거야?" 내가 물었다.

"응."

"번개배송 벨은?"

"그건 번개배송 거야. 이건 내 거고."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고 덧붙였다. "자전거 좀 잡아 줄래?"

종을 다는 건 토뇨가 했다. 나는 자전거를 잡았을 뿐이고, 그것도 부탁해서였다. 고정쇠가 핸들 둘레를 조였고, 번개배송의 회색 벨 바로 옆이었다. 토뇨는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나사를 죄었다. 마라 아줌마는 문가에서 팔짱을 끼고 보고 있었다. 아줌마가 팔짱을 끼는 건 박수 치는 방식이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작은 망치를 쳤다.

딸랑.

5시 10분에 번개배송이 지나갔다. 줄을 지어 길을 오고 있었다. 맨 앞에 땋은 머리를 바람에 날리는 조이, 그 뒤에 프레임에 공기 펌프를 단 브루노, 그리고 맨 끝에 토뇨만 한 빈자리. 브루노가 브레이크를 잡았다.

"이거 무슨 소리야?"

"종."

"어디서 났어?"

"내 거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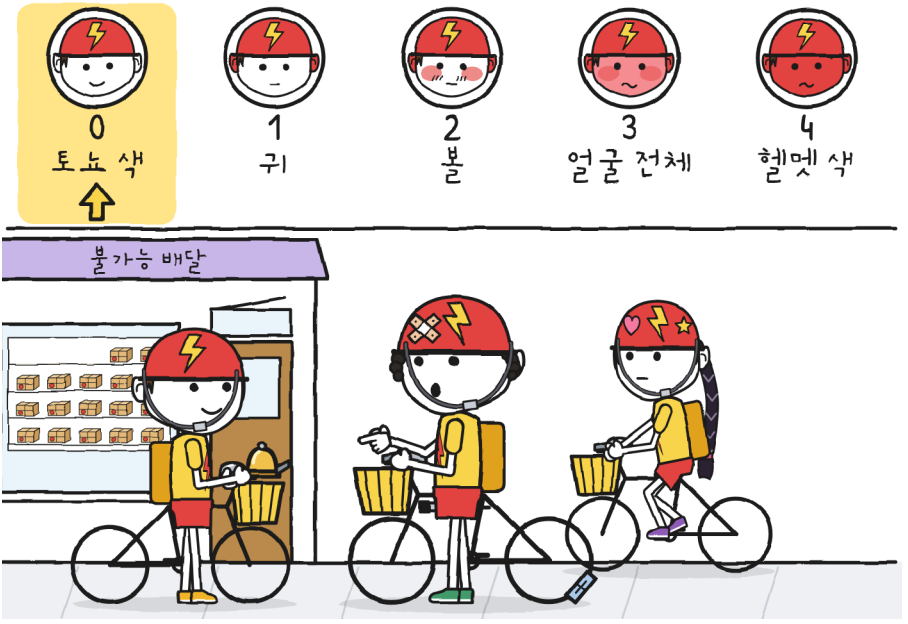
"우리 토뇨이던 때 거야?"

토뇨의 얼굴을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귀조차.

"그렇게 불리던 때 거야. 지금은 토뇨야. 너는 이름이 뭐야?"

"펑..." 브루노가 말을 끊었다. "브루노."

"그럼 됐네, 브루노."



브루노는 방송에서 자기 이름이 불린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번개배송에서는 2년 동안 아무도 브루노를 브루노라고 부르지 않았다.

조이가 입을 열었다.

화요일에 조이는 '브루노'에 줄을 긋고 '펑크'라고 쓴 터였다.

토뇨가 작은 망치를 쳤다. 한 번, 아무도 보지 않고.

딸랑.

조이는 입을 닫았다. 생각했다. 신호등의 노란불이 켜져 있는 만큼 걸렸다.

"소리 좋다." 조이가 말했다. "우리 늦었어, 토뇨."

토뇨라고 했어.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J.

셋은 줄을 지어 떠났다. 조이, 브루노, 그리고 맨 끝에 토뇨. 엄지손가락은 늘 작은 망치 가까이 둔 채.



그날 밤 나는 블라인드를 다시 올려 두었다.

감시용 의자 두 개도 창문 앞에 그대로 놓았다. 내 의자와 알람시계용 작은 의자. 전통이니까. 그리고 알람시계를 겨드랑이에 끼고 침대에 들어갔다. 그날 밤에는 누워서 지켜보았다.

"또 지켜보니?" 우리 엄마가 복도에서 물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거야."

"그건 내가 아주 잘하지. 자거라."

거의 12시까지 버텼다.

뚜껑 열린 매직펜을 들고 잠들었어. 네 개가 초록색이 됐어. —J.

알람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온몸이 딸랑 소리 하나에 대비한 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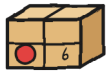
해가 떴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딸랑 소리도, 열리는 창문도, 4번지 개도 없었다.

우리 동네 길에서 들어 본 가장 아름다운 고요다.





제6장

일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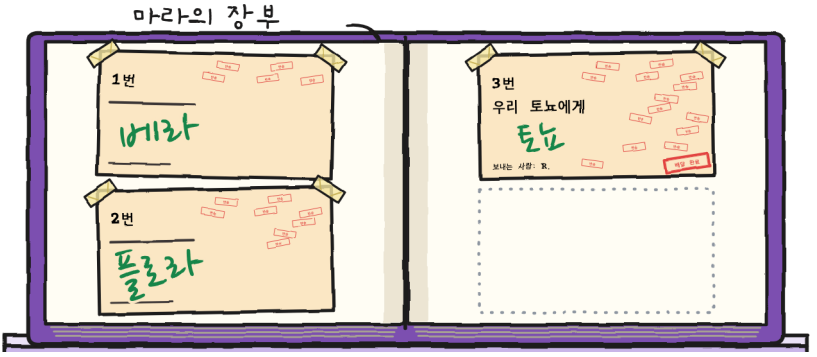
토요일 10시에 나는 선반을 그렸다. 택배 열일곱 개와 빈자리 세 개.

옷을 입고 길을 건너왔다. 그것만 해도 발전이다. 첫 토요일에는 잠옷에 슬리퍼 차림이었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문 위쪽의 작은 창을 보았다. 돌아오는 택배를 위해 마라 아줌마가 열어 두는 그 창. 열려 있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빈자리는 택배보다 그리는 데 오래 걸렸다. 빈자리마다 깨끗한 직사각형이 남아 있었고, 그 둘레에는 먼지가 있었다. 연필에 힘을 주지 않고 그렸다.

그동안 마라 아줌마는 서랍에서 장부를 꺼내 계산대 위에 펼쳤다. 문을 등지고서. 3번 택배의 라벨을 떼어 장부에, 다른 두 개 옆에 붙였다.

토요일의 벌을 배달하듯 지키는 토뇨는 — 제시간에, 헬멧도 벗지 않고 — 계산대 건너편에서 보고 있었다. 토뇨의 이름, 서명한 그 이름이 상자에서 장부로 옮겨 가고 있었다. 장부를 보았다. 닫힌 문을 보았다. 다시 장부를 조금 더 보았다.



도장 서른일곱 개, 스물셋과 열넷. 초록색 서명 세 개.

알 하나, 씨앗 몇 알, 종 하나. 셋 다 늦게 도착했다. 셋 다 도착했다.

세 번째는 토뇨가 직접 서명했어. 이번에는 내가 매직펜만 건넸어. —J.

토뇨는 자기 상자에 앉아 몸을 뒤척였다. 이번에는 선반을 보지 않았다.

"아직은 '일단은'이야." 마라 아줌마가 장부에서 눈을 들지 않고 말했다.

"일단은 이거면 돼요." 토뇨가 말했다.

일단은은 몇 년도 갈 수 있어. 3번 택배한테 물어봐.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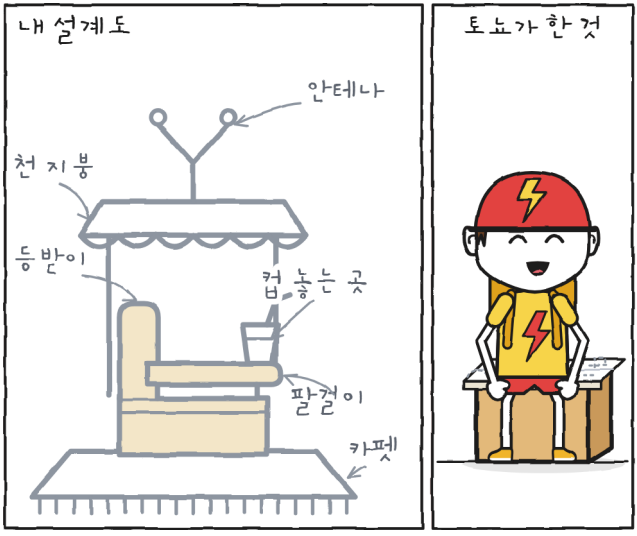
나는 토뇨에게 그의 의자를 위한 내 설계도를 보여 주었다. 일주일 내내 걸렸다.

치수와 범례가 있는 최종 버전으로, 배달 상자를 왕좌로 바꾸는 설계였다. 폭풍 치던 밤의 등받이, 버전 2의 팔걸이와 컵 놓는 곳, 버전 3의 술 달린 천 지붕, 그리고 역시 술이 달린 새 양탄자가 다 들어 있었다. 안테나는 밤 12시에 저절로 그려졌다. 뭘 수신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두었다.

졸업장처럼 두 손으로 내밀었다. 토뇨는 R.의 쪽지를 읽을 때와 같은 진지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다.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고마웠다. 훌리타는 내 어깨 너머로 사진에서 친척을 알아본 사람의 얼굴로 그걸 보았다.

"그거 나 줄래?" 토뇨가 말했다.

토뇨는 그걸 네 번 접어서 상자 위에 놓고 앉았다.





밖에서는 종이 핸들에서 기울어져 있었다. 바람 쐬러 나와서 보았다. 버스에서 졸다 떨어진 머리처럼 반 바퀴쯤 옆으로 처져 있었다.

"조일 동안 내가 잡아 줄게." 내가 말했다.

"내가 할 수 있어."

토뇨는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나사를 보고 있었다. 백 바퀴는 돌아야 할 것 같았다.

토뇨는 혀끝을 내밀었다. 내 옆에서 훌리타는 멜빵바지 주머니에 손목까지 두 손을 넣고 있었는데, 안에서 주먹이 뭉치는 게 보였다. 나는 멜빵바지가 없다. 등 뒤에서 한 손으로 다른 손을 붙잡았다.

토뇨가 마지막 한 바퀴를 돌리자 종이 병사처럼 꼿꼿이 앞을 보았다.

"됐다." 토뇨가 말했다.

나는 내 손을 놓아 주었다. 보기보다 어려운 일이다.

들어가자 훌리타가 계산대 밑에서 사인 종이를 꺼냈다. 서명 두 개, 구멍 하나가 있고, 그날 아침부터는 덧댄 자리도 하나 생겼다. 작은 창은 종이 조각과 테이프로 막아서, 덧댄 자리가 종이에서 제일 튼튼했다.

"그 함정 때 종이예요." 훌리타가 마라 아줌마가 묻기 전에 말했다. "고쳤어요."

그러고는 토뇨 앞에 내려놓았다.

"사인해 줄래? 진짜로. 밑에 아무것도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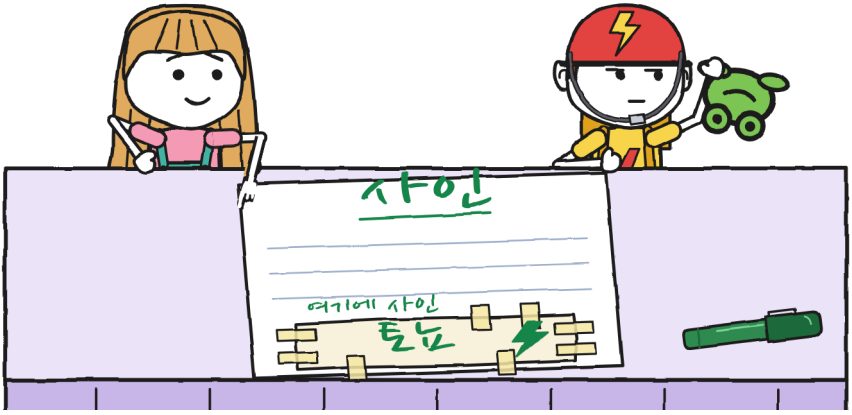
천천히, 딱 한 번 말하고 기다렸다.

토뇨는 종이 밑을 보았다. 계산대 밑을 보았다. 개구리를 뒤집어 보았다.

토뇨가 개구리를 들어 올릴 때 훌리타의 얼굴 근육이 움찔했다. 그게 유일한 이의였다. 그것도 혼자서 거두었다.

"좋아."

토뇨는 덧댄 자리 위에 서명했다. '토뇨', 마지막 글자 끝에 번개 하나를 매달아서.



점심때 토뇨는 배달을 나갔다. 문가에서 보니 종은 제자리에 단단히 달려 있었다. 베레모를 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모퉁이 횡단보도로 길을 천천히 건너고 있었다.

토뇨는 브레이크를 잡았다. 한 발을 땅에 대고 기다렸다. 그러고는 종을 딱 한 번 쳤다.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 자기를 알게.

딸랑.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들어 인사하고 자기 걸음으로 계속 걸었다.

마라 아줌마가 내 옆 문가로 나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야." 아줌마가 말했다. "내 목록의 두 번째 '우리 토뇨'."

"나도 그러고 싶구나" 하던 바로 그분이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쪽 인도까지 와서 토뇨의 자전거 옆에 멈추었다. 토뇨는 가지 않고 거기 있었다. 한 발은 땅에, 손은 작은 망치 가까이, 서두르지 않고.

"그 종 새 거냐?" 할아버지가 물었다.

"오래된 거예요." 토뇨가 말했다. "내 거였어요. 우리 토뇨라고 불리던 때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진 지 60년이야. 원하면 바꾸자. 너는 안토니오 할아버지, 나는 우리 토뇨."

토뇨는 생각했다. 베레모를 보고, 자기 핸들을 보았다.

"일단은 사양할게요."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가락 하나로 베레모를 만졌다. 거래를 맺고도 문을 열어 두는 사람처럼.

"여기 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천천히 건너마."



토뇨는 12분 만에 배달에서 돌아왔다. 훌리타가 시간을 재 두었다. 자기 시계를 들여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토뇨는 자기 상자에 앉았다.

나는 R.의 카드를 꺼냈다. 초상 자리에 큰 물음표가 하나 있고 그 밑에 R. 이라고 적혀 있고, 단서가 여섯 개 있는 한 장짜리. 두 개를 더 적었다.

- 단서 7. 토뇨가 작은 자전거를 타던 때부터 토뇨를 알았다.
- 단서 8. 소리가 나는 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몇 년이 걸렸다.

토뇨가 볼펜을 달라고 하더니 자기 글씨로 그 밑에 썼다. 목록 바깥에, 배달원의 빽빽한 큰 글씨로, 아랫장에 배어 나올 만큼 꾹꾹:

남은 일: 나한테 설명해야 한다.

"고맙다는 말은 안 할 거야?" 훌리타가 물었다. 찰랑이는 찻잔을 들고 가듯이 천천히 물었다.

"고맙다는 말이랑 항의. 둘 다. 누군지 알게 되면."



1시에 베라 아줌마가 부스러기를 안고, 머리에 작은 나뭇가지를 꽂은 채 들어왔다.

"도움을 청하러 왔어." 아줌마가 말했다. "부스러기가 이제 날 줄 알아. 이제는 안전하게 내려앉을 곳이 필요해." 잠깐 말을 멈추었다. "어제는 내 수프를 골랐어."

첫 마디부터 나는 걸상에서 허리를 폈다. 부스러기는 뿔 하나에 국수 가락을 걸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내 '나 아니에요' 얼굴을 지었다.

네 얼굴이랑 똑같아. 국수 가락까지. —J.

"빠른 사람이 필요하세요?" 토뇨가 자기 상자에서 물었다.

부스러기가 베라 아줌마의 팔 안에서 몸을 기울여 토뇨의 헬멧 냄새를 맡았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베라 아줌마가 말했다.

"저도 알아요. 이번 주부터요."

토뇨 뒤에서 훌리타가 두 손을 들었다. 아주 예의 바른 강도 앞에서 항복하는 사람처럼.

나도 기다릴 줄 알아. 이제 됐어? —J.

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목록을 만든다. 이번에는 이해했는데도 목록이 나왔다. 이 공책의 마지막 장, 배달 표.

3번 택배 배달. 각자 걸린 시간:

- 번개배송: 10분.
- R.: 몇 년.
- 토뇨: 6일.
- 귀 기울이는 훌리타: 11분 (신기록).

토뇨는 자기 상자에서 일어나 헬멧을 고쳐 쓰고, 종이 아직 곧은지 손가락으로 확인했다. 곧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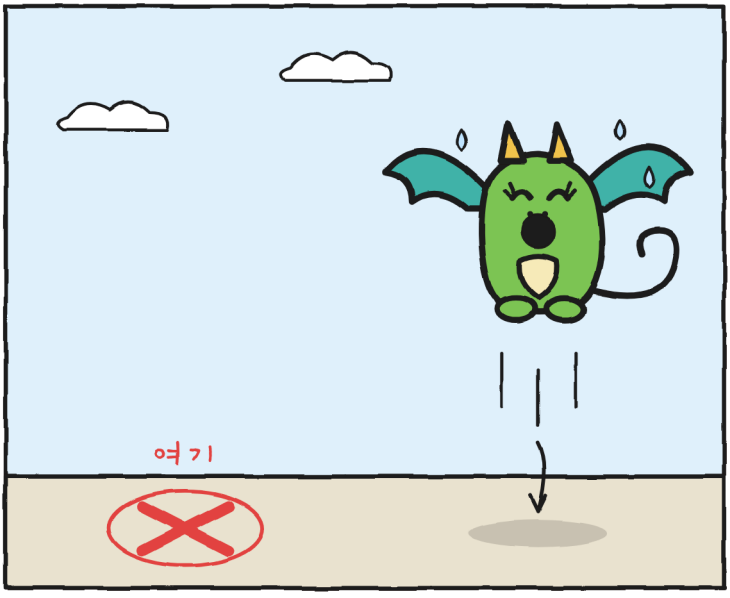
토뇨는 배달을 나갔다. 길에서 딸랑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번에는 종을 치는 쪽이 토뇨였다.

나는 아직도 혼자서 딸랑거려. 노력 중이야.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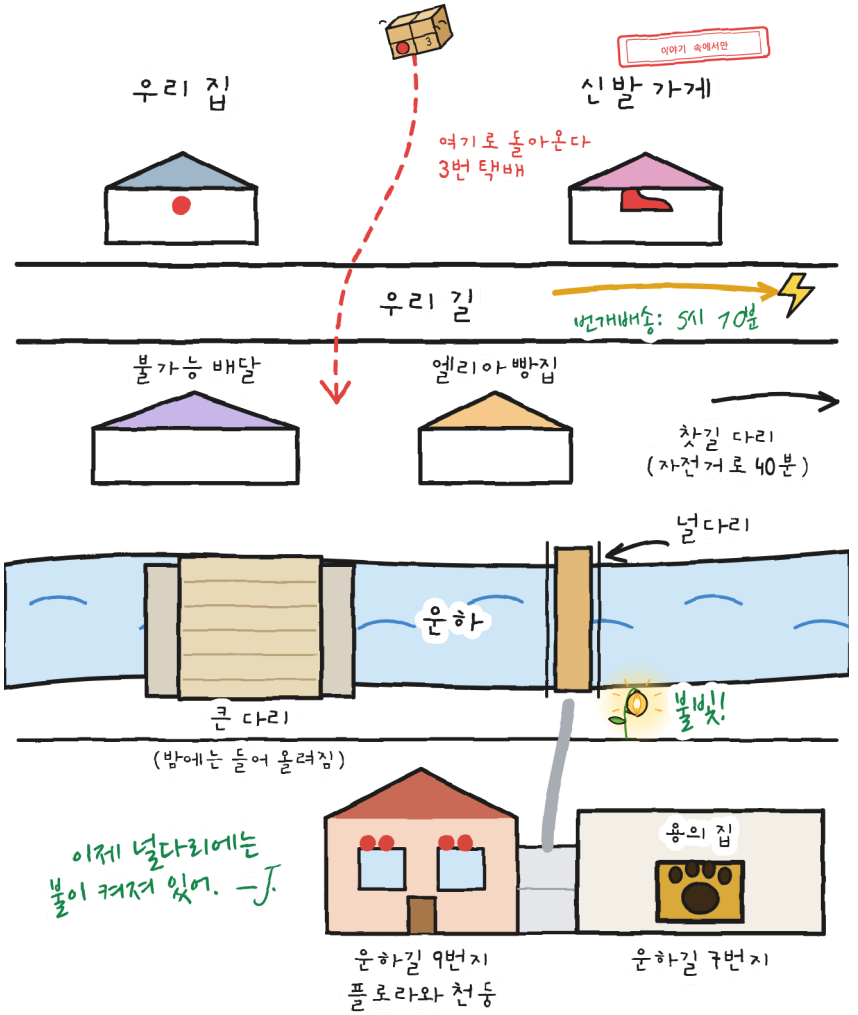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4

(곧 나옵니다)



너를 따라 하는 아기 용은 어디에 내려앉을까? —J.

우리 동네 (버전 3)


3
이야기 속에서만
우리 집
신발 가게
여기로 돌아온다
3번 택배
우리 길
번개배송: 5시 10분
불가능 배달
엘리아 빵집
찻길 다리
(자전거로 40분)
널다리
운하
큰 다리
(밤에는 들어 올려짐)
불빛!
이제 널다리에는
불이 켜져 있어. -J.
용의 집
운하길 9번지
플로라와 천둥
운하길 7번지

너는 이름이 뭐야?

토뇨는 '우리 토뇨'라고 불렸다. 이제는 자기 이름을 자기가 고른다. 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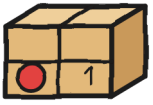
이렇게 불러 주면 좋아...

이렇게 불러도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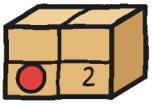
이렇게는 안 불렀으면 해...

나는 홀리타야. J.는 서명할 때만.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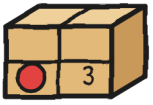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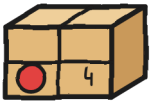
1. 이 택배는 문다



2.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3. 반송 부탁해요



4. (곧 나옵니다)

남은 택배는 열일곱 개. —J.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이 책에는 여섯 가지 사이즈가 있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같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쪽마다 들려주는데, 갈수록 이야기가 더 섬세해진다. XL은 소설이다. 같은 이야기에, 구니가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담을 자리가 있다.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XXS, pre-A1 · XS, A1 · S, A2 · M, B1 · L, B2 · XL, B2–C1.

각자 자기 사이즈로. 같은 딸랑.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L 사이즈의 활동 포함)

진짜 자전거를 탈 때 해야 할 일

1. 헬멧은 언제나, 끈을 단단히 채워서. '바로 옆'에 갈 때도.
2. 남이 너를 보고 듣게 해. 등, 밝은 옷, 벨. 벨은 알리는 거지, 명령하는 게 아니야.
3. 두 손은 핸들에. 뭔가에 정신이 팔리면 안전한 곳에 멈춰.
4. 인도는 걸어가는 사람의 것이야. 거기서는 자전거를 손으로 끌어. 건너기 전에는 멈춰서 살펴.

'이야기 속에서만' 도장은 이야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길에서는 아니야.

나가기 전에 자전거를 점검해

